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9~2/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일연	보물창고
2	부처님의 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무비스님 신금강경 강의(어플경전강의01) 큰 글자책	무비 스님	불광출판사
3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니까야강독1(초기불전005) 출가자의 길	각묵,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4	불교사의 이해(조계종신도교재3)역사	이만 외	조계종출판사	9	행복한 삶을 위한 부처님 말씀(1)	이철현 엮음	오색필통
5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책세상

‘수호신 3일 기도’ 이렇게 하면 늘 부처님 가피



수호신 기도
묘장 스님 편저
민족사 / 1만원

신중기도 풀이한 ‘수호신 3일 기도’
남녀노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성
신중기도 내용 · 의미 · 이유 알림 취지
기도문과 상세한 설명 실천 팁 수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늘부터 저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과 수호신들의 가피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동행하며 기도하는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교계의 대표적 사회복지 및 국제구호 활동가인 묘장 스님〈사진〉이 〈수호신 기도〉를 출간했다. 책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호신의 보호를 간청하는 방법과 평온, 행복, 대자유를 성취할 수 있는 3일 기도 수행의 과정을 소개한다. 이번 책은 단순히 불교의 경전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현대인의 삶에서 실천 가능한 기도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묘장 스님의 수호신 3일 기도는 부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수호신(신중)들의 보호를 받는 기도라서 성취가 더욱 빠른 기도다. 이런 묘장 스님의 3일 기도는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의 하나인 신중기도를 풀이한 것으로, 책은 불자들에게 신중기도의 의미와 이유를 제대로 알리는 데 취지가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묘장 스님은 이미 〈나는 절로〉 시리즈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저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과 현대적 실천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자신 또는 기도해 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면 성취가 빠르기 때문이다.

1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수호신 기도를 시작하며…’에서는 ‘기도의 육하원칙’을 소개한다. 나를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2장 ‘나 홀로 셀프 기도’에서는 여섯 개의 코스에서 수호신 기도를 안내한다. 1코스 ‘부처님의 자비심 닮기’에서는 기도의 시작이 ‘자비심’에 있음을 설명하고, 마음속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자비심을 일으키고 늘어나게 해 주는 〈자비경〉을 읽는다.

2코스 ‘수호신들이 보호해 주는 경 읽기’에서는 〈과거칠불보호경〉을 읽는다. 〈과거칠불보호경〉이 어떤 경전인지, 읽는 방법과 기도의 가피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과거칠불보호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과거 여섯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 모두 일곱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의 경전이다. 부처님들 곁에서 부처님과 불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수호신들(신중 또는 화엄성중)이 내려와 듣는 경전이기 때문에 신중기도 때 독송하면 좋은 경전이다.

3코스 ‘마음을 닦고 공덕을 기르는 경전 독송하기’에서는 오랫동안 한국불교의 수호경으로 전승되어온 〈천수경〉을 독송한다. 지금 이 순간 기도해줄 이를 위해 칠불과 수호신들을 찬탄하고 예경한 공덕만으로도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더 큰 성취를 위해, 아니 늘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경전을 독송해야 한다. 그 시작이 〈천수경〉이다.

4코스 ‘수호신을 모시고 공양 올리는 기도’에서는 수호신을 모시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기도를 한다. 이 기도는 절에 가서 스님과 함께해야 하지만 집에서 해야 한다면 책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수호신(신중)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과 화엄경 약찬게, 반야심경을 독송한 후에 불설소재길상다라니와 마무리 진언을 하고, 화엄성중을 부르는 것이 수호신 기도의 핵심이다. 수호신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호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다.

5코스 ‘공양 공덕 회향하기’에서는 회향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회향문’을 읽는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롭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나만 혼자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공덕으로 다른 사람들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향하는 것이야말로 불자의 바른 자세라고 강조한다.

마지막 6코스 ‘기도는 이루질 때까지, 선택이 아닌 필수’에서는 회향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수호신 기도〉는 일종의 워크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대중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직접 자신이 쓰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이다.

책의 중심에는 ‘3일 기도’라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이 자리 잡고 있다. 책은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기도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이들을 수호신의 보호 아래 둘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기도와 수행이 단순한 개인적 명상의 차원을 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조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묘장 스님은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이며, 스스로와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책은, 불자는 물론 수행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도문과 함께 상세한 설명과 실천 팁을 수록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가이드라고 할 수 있다. 〈수호신 기도〉의 가장 큰 힘은 그 상세한 설명과 실천 팁으로 인해 기도하는 동안 점점 기도 성취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는 것이다.

묘장 스님은 실제 수행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기도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독자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한다.

일본 선승이 쓴 한국불교사



한국선교사
누카리야 카이텐 지음
호경 스님 역
민족사 / 7만8천원

일본 조동종 선승인 누카리야 카이텐이 1930년 출간한 〈한국선교사(원저명:조선선교사)〉는 한국 불교사를 서술하고 있는 책 중에서 몇 안 되는 명저로 알려진 책이다. 한국어로는 1978년 정호경 스님의 번역으로 출간됐으며, 1977년 정호경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일초 스님이 학은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에 다시 발간했다.

저자인 누카리야 카이텐(1867~1934)은 고마자와대학 학장을 지냈다. 이후 그는 1929년 이 책을 쓰기 위해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많은 자료를 모았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고마자와대학에서 한국불교사를 강의했고, 그 결과로 〈한국선교사〉가 출간됐다.

책은 삼국시대부터 근대 초기까지 비문 등 모든 자료를 모아 서술한 통사적 성격의 책이다. 선승과 교학승들을 총망라하여 서술한 인물사 중심의 한국불교사로, 특히 한국 선사상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했다. 제1편에서는 해동불교의 기원을 밝히고, 삼국의 불교를 비교해 적고 있다.

제2편에서는 해동에서 선종이 시작되고 전개되는 과정과 주요 인물·선풍을 조명한다.

‘선교 병립의 시대’라고 크게 적고 있는 제3편에서는 고려의 불교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선교 병행의 시대적 양상 속에서 전개된 국사·왕사 제도, 문교의 흥행, 간화선, 그리고 망국적 불사 등 고려 불교의 흥망을 촘촘하게 적고 있다.

제4편에서 적고 있는 것은 배불의 시대인 조선의 불교다. 선교 쇠퇴의 시대라고 요약한 조선의 불교를 적고 있는데, 책의 끝에서는 “멸하는 것 같으면서도 멸하지 않았고, 쓰러질 듯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은 조선불교”라고 적고 있다. 박재완 기자

화제의 신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책!
실천 가능한 기도의 방식과, 수행의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수호신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3일 기도
묘장 편저 | 112쪽 | 10,000원

현재 연화사 주지. 국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 불교신문 논설위원.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태국 대홍수, 네팔 대지진, 포항 지진, 모로코 지진에 재난구호활동과 우크라이나 전쟁난민 지원 활동을 하였다.
저서로 『도표로 읽는 부처님 생애』가 있으며, 나는 절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통령상 수상(2024), 조선일보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대상을 수상(2024)하였다.

**“기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복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호신 기도’는 그 시작을 돕기 위해 집필된 책입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